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6월은 보광의 달

#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으로 환원되신 구세주

6월은 보광(普光)의 달이다. 또 국가적으로 보훈의 달이다. 보광의 달을 맞이하여 구세주께서 왜 보광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보광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와 까닭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육신을 입은 채 영원무궁토록 인류와 같이 계시면서 영생의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실 줄 알았던 구세주라 믿었는데 11년 전 돌연 보광의 길을 가셨으니 일부 신도들과 불신자들이 보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영육일체와 보광

보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광과 영육일체(靈肉一體)는 양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영육일체란 말 그대로 영과 육이 하나이므로 사람이 죽으면 영도 죽게 되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교리인데 조희성 구세주도 육신이 죽었으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된 것이므로 영생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원시반본 했다고 승리제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영육일체의 교리에 어긋나므로 자가당착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조희성 구세주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되면 해소될 문제이다.

영육일체는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이론이다. 보통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죽으면 영도 소멸하므로 영육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다. 하지만 조희성 구세주는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난 존재이므로 영육일체설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이다. 평범한 일반인들과 달리 자신의 몸을 쪼개어(分身) 동시다발적으로 현현(顯現)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세주는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에게 분신(分身)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감로 이슬성신을 계속 내려주시므로 육안으로 확인되거나 카메라에 찍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구세주의 본체가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분 뒤에 자신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미친한 인생들이 전지전능한 구세주의 구원사역의 단편(斷片) 또는 일부를 보고 구세주의 전 모습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불경에도 말하기를 여래(如來) 곧 미륵불은 온 우주에 먼지와 같은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날아다닌다(열반경23권 광명변조고귀력왕



사진설명: 조희성 구세주께서 축복을 하신 직후 거울에 이슬성신이 그대로 남아 있다. 거울에 비친 구세주의 왼쪽 손에 불덩이가 보인다. 이 사진으로 구세주의 실체가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살품)라고 기록하여 본인의 능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조희성 구세주께서 분신으로 역사하신 것을 직접 체험한 승리제단 신도들의 간증과 부합(符合)하는 것은 조희성님이 미륵불임을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불사(不死)의 생명체임을 밝혀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육신을 가지고 24년간 역사하셨던 조희성 구세주는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한 답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자신은 수많은 구세주의 분신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다.

### 구원의 역사

조희성 구세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된 직후 "구원 얻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 세상을 쓸어버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 보겠으니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여 승리제단을 세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조희성 구세주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세계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조희성 구세주는 인간의 몸을 벗은 존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인 빛의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조희성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줄이고 줄여서 빛의 존재에서 다시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몸을 다시 가졌다는 것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임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다시 죄인이 되어 죄와 싸우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인류를

구원의 차원으로 올리기 위하여 애를 쓰시고 기를 쓰신 것이었다.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만 명의 죄를 담당하면서 구세주는 24년간 의인을 배출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귀부터 죽이기 시작하여 차례로 마귀를 죽여 나가는 역사를 하신 후 "이 사람이 마귀를 전부 죽이니 마귀들이 안 죽으려고 우주 구석구석에 가서 숨어있는데 그 숨어 있는 마귀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다 죽이고 있다. 대장마귀들은 다 죽이고 이제 남아있는 마귀들은 쫓자마귀들 뿐이다"라며 쫓자마귀들만 남아있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 보광의 길을 가신 이유

조희성 구세주께서 7년 육고를 치르시고 나오신 후 첫 말씀에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의인의 수(數)가 어느 정도 나와야 호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호조건이란 구세주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육신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세주께서 보광의 길을 가셨다는 것은 호조건을 열 만한 의인의 수가 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구세주의 말씀대로 우리 신도들이 자유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광의 길을 가신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

희생양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제물로 바치고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는 의식에서 비롯된 말이다. 양피로 오신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승리자의 제단(祭壇)에 올라 매일 같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 죄인들

**조희성 구세주는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난 존재이므로 영육일체설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이다. 평범한 일반인들과 달리 자신의 몸을 쪼개어(分身) 동시다발적으로 현현(顯現)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세주는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에게 분신(分身)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감로 이슬성신을 계속 내려주시므로 육안으로 확인되거나 카메라에 찍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구세주의 본체가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처럼 제물로 바쳐진 존재가 바로 구세주이다. 인류의 영생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조희성 구세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이 진정한 구세주의 자식이라면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생명을 바쳐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보광이란: 조희성 구세주께서 2004년 6월 19일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으로 원시반본(原始返本) 하신 것을 일컬어 보광(普光)이라고 한다.\*

김중천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60)

### “날아다니는 학설”

그날에 이르러 의인은 날아다닌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간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앞으로 그런 날이 날아다니고 싶어 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 속에 날아다녔던 경험이 있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6,000년 전의 사람은 오늘날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요 완전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생각만 하면 생각하는 곳에 이미 그 몸이 날아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어떤 제한과 제약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자유자재로 날 수 있는 몸이었다.

지금의 사람의 몸은 자유롭게 그 옛

날처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흠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려면 사람의 몸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생각만 하면 달나라 별나라 온 우주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행복한 몸이 되는 것이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깨달아지면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날아다니는 시대가 온다는 말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되는 것이다.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난다는 것이 허황된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구도의 길

## 자신의 결점 중 아주 사소한 것을 먼저 고쳐야 한다

무언가 한 가지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취직시험에 합격하든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든지, 그것이 남이 보기에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장님 그걸 해낸 당사자는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이다.

우리 승리제단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정진하는 구도자들이 모인 종교단체이다. 우리가 말하는 승리자란 타인과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자를 말하는 데 그 싸움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크기승자(克己勝者)는 천하승(天下勝)이라는 말처럼 자신을 이긴 자는 천하를 이긴 자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승리제단에는 수많은 구도자들이 찾아왔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완전히 자신을 이긴 첫 번째 승리자께서 계시는 고로 치열한 구도심을 가지고 이곳에 온 많은 구도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멀어져 나갔다.

진정한 구도자들은 자신의 일신(一身)만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자를 꿈꾸는 구도자들은

인류의 영생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위하여 자신과 한판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나 하나가 승리자가 되면 1350명이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엄청난 공로가 생긴다.

그러므로 시야를 좀 넓혀서 마음을 크게 싸야 한다. 지금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이 적어도 수백 수천 명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매사에 임하는 구도자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오는 병폐가 있다. 바로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점이다. 마음을 크게 갖는 것과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다르다. 마음을 크게 갖는 것은 사소한 결점을 극복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자신에게 가장 사소한 결점이 먼저 빨리 파악하라. 그리고 그것을 고쳐라.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치고 큰일을 해낸 사람이 없다. 사소한 것을 고치고 또 고치다 보면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사소한 것을 찾아 빨리 고쳐라.\*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누구든지 내 몸처럼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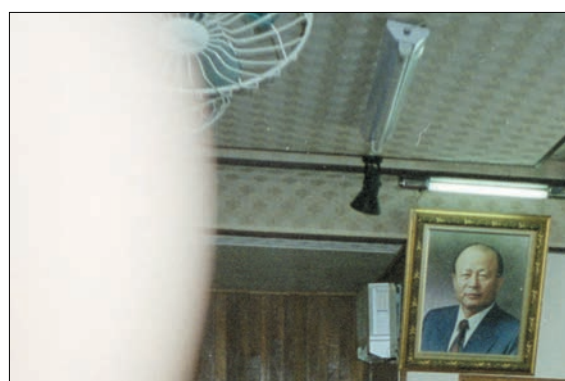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진해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뒤에 서있는 사람이 안보인이다



진해제단에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2015. 4. 17)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